

인도네시아 인프라협력센터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 (3월 4주~3월 5주)

□ 정책 및 시장 동향

1. 프로젝트 정보

- [환경인프라] Danantara, Bogor 광역권 폐기물에너지화(WTE) 사업 운영사로 중국 기업 선정¹⁾(Antara, 3/14)
 - 국부펀드 Danantara는 서부자바 Bogor 광역권 WTE 사업 운영사로 중국 Zhejiang Weiming Environment Protection Co., Ltd를 선정했다고 발표. 해당 기업은 다수 기업이 참여한 선정 절차를 거쳐 운영사로 결정됨. 앞서 3월6일에는 Bekasi 운영사로 중국 Wangneng Environment Co., Ltd를, Denpasar(Bali) 운영사로 Zhejiang Weiming을 각각 선정한 바 있으며, 1단계 4개 대상 도시 중 Yogyakarta 운영사는 미발표 상태
 - Danantara Pandu Sjahrir 최고투자책임자는 Zhejiang Weiming과의 협력계약 체결이 도시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 접근의 일환이라고 설명. 선정 기업은 운영 성과 유지, 관련 규정 준수, 지역사회 참여 확대 등을 이행해야 함. 이번 계약 체결은 도시 폐기물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는 대통령령 제109호/2025 구현 사례로 제시됨
 - Danantara는 해당 사업을 통해 매립 의존도를 낮추고 도시 폐기물의 통제·처리를 강화할 계획. Zhejiang Weiming은 기술 이전과 지방 정부 및 현지 기업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현지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함
- [플랜트] 인니 정부, Masela 블록 FID 촉진 위해 Danantara 오프테이커 참여 가능성 제기²⁾(Bisnis, 3/16)

1) <https://enantaranews.com/news/408474/danantara-partners-with-chinese-firm-for-bogor-waste-to-energy-plant>
<https://katadata.co.id/finansial/bursa/69ca772310bf3/danantara-resmi-umumkan-pemegang-tender-waste-to-energy-di-2-kota-siapa-saja>

2)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0316/44/1960679/dorong-fid-blok-masela-danantara-siap-jadi-offtaker>

- 에너지광물자원부 Bahlil Lahadalia 장관은 3월15일 도쿄 방문 중 INPEX 경영진과의 면담에서 Abadi Masela 프로젝트의 최종 투자결정(FID) 단계 진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함. 국제 LNG 구매자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있는 가운데, 장관은 4월 말까지 확정적인 구매자가 없을 경우 국부펀드 Danantara를 오프테이커(offtaker)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동 면담에서 INPEX 측도 프로젝트 조기 실현 의지를 재확인함
- 약 200억불 규모 Abadi Masela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 동부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평가되며, 향후 국가 산업 부문에 대한 주요 가스 공급원이 될 것으로 설명됨. 인니 정부는 2026년 2분기, 늦어도 3분기 중 FEED 단계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후 EPC 입찰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임. 동 프로젝트의 주요 인허가 절차도 진전된 상태로, 2026년 1월 산림지역 사용 승인, 2월 13일 환경영향평가(AMDAL) 기반 환경승인이 완료됨
- [도시개발] 3백만 호 주택 공급 프로그램, 토지 문제 대응책으로 TOD 방식 공동주택 추진³⁾(Bisnis, 3/16)
 - 인프라·지역개발조정부 장관 Agus Harimurti Yudhoyono(AHY)는 3백만 호 주택 공급 프로그램의 주요 과제로 토지 확보 문제를 지목. 분쟁 해소 및 권리 관계 정리를 위해 농지공간계획부/국토청(ATR/BPN), 주택정주부, 공공사업부, 교통부, 이주부 등 관계부처 간 협력 진행을 하고 있으며. 도심 토지 부족 대응책으로 TOD 방식 공동주택 건설을 추진 중
 - 철도공사(PT KAI) 소유 망가라이(Manggarai) 역세권 부지(2.2ha)를 활용한 사업이 추진 예정이며, 타워 8개동 건설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완공 시 저소득층 대상 주택 약 2,200세대 공급이 가능하며, AHY는 PT KAI의 전략적 입지 자산이 도심 주택 공급의 핵심이 될 것으로 언급. AHY는 전 세계 인구의 70%가 향후 도시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하며, 토지 제약 속 공동주택 방

3)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0316/47/1960749/masalah-lahan-jadi-tantangan-program-3-juta-rumah-ahy-usul-solusi-ini#goog_rewarded

식을 불가피한 대응 수단으로 제시

○ [도시개발] 주택개발가속화 태스크포스, 3백만 호 프로그램 하위직 공무원 우선 공급 방침⁴⁾(Bisnis, 3/16)

- 주택개발가속화 태스크포스 의장 Hashim Djojohadikusumo는 망가라이(Manggarai)역 공동주택 착공식에서 하위직 공무원(ASN)을 3백만 호 프로그램의 우선 공급 대상으로 지정할 방침을 발표. 동 프로그램은 저·중소득층의 주택 접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공급 절차 신속화를 위한 태스크포스가 별도 설치·운영 중. 망가라이 착공식과 동시에 반둥, 스마랑, 수라바야에서도 공동주택 착공식이 진행되었음
- 망가라이역 공동주택은 12~24층 규모 타워 8개동으로 구성되며, 주거와 교통 서비스 연계를 목적으로 함. 일부 세대는 PT KAI 직원 가족용으로 배정될 예정

○ [인프라] 인정부, 고속철 구간 연장 전 KCJB 재무구조조정 先 추진⁵⁾(Bisnis, 3/11)

- 인프라·지역개발조정부 Agus Harimurti Yudhoyono 장관은 Jakarta-Bandung 고속철도(KCJB) 재무구조조정이 완료된 이후 Jakarta-Surabaya 구간으로의 Whoosh 연장 계획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힘. 정부는 현재 KCJB 사업의 재무구조조정을 우선 과제로 두고 관련 논의를 진행 중
- 해당 논의에는 재무부 Purbaya Yudhi Sadewa 장관, Danantara Rosan Roeslani CEO 등 주요 관계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재무구조조정 완료를 향후 고속철 확대의 선결 조건으로 보고 있음
- 정부는 기존에 Jakarta-Surabaya, 나아가 Banyuwangi까지의 고속철 연장 가능성을 검토한 바 있으며, AHY 장관은 시속 350km 수준의 고속철도는 중장거리 이동에서 경제적 편익이 더 크다고 설명. 수라바야까지 연장 시 이동시간 약 3시간으로 단축가능

4)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0316/47/1960819/hashim-djojohadikusumo-bakal-prioritas-program-3-juta-rumah-untuk-asn-junior>

5)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0311/98/1959645/ahy-jarak-tempuh-jakarta-surabaya-hanya-3-jam-jika-whoosh-diperpanjang#goog_rewarded

2. 주요 기업 · 기관 동향

○ [해외정부] 캐나다, 서부자바 투자 타진⁶⁾(Media Indonesia, 3/12)

- 주인도네시아 캐나다 대사 Jess Dutton이 반둥 가톨릭대학교 특강을 계기로 Gedung Sate를 방문해 서부자바 부지사 Erwan과 면담을 갖고 투자 관심 표명. 캐나다 측은 우선 현지 기업과의 접촉을 통해 투자 기회를 모색할 계획
- 서부자바 부지사 Erwan은 캐나다와의 소통 및 협력 확대에 열려 있다고 밝히며, 투자·교육 외에도 기술, 무역, 청정에너지, 인적자원 개발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
- 서부자바와 캐나다는 기존에도 협력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언급됨. 캐나다 기업들은 녹색인프라, 다운스트림 산업,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West Java Investment Summit에 참여한 바 있으며, 2024년 Bandung에서는 인도네시아-캐나다 CEPA 협상이 개최된 바 있음

○ [해외정부] 인나일본 핵심광물 및 원전 협력각서 체결⁷⁾(Bisnis. 3/16)

- 인도네시아와 일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에너지 공급망 강화와 미래 에너지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핵심광물 및 원자력 에너지 분야 협력에 합의. 양국은 도쿄에서 열린 Indo Pacific Energy Security Ministerial and Business Forum(IPEM)을 계기로 관련 협력각서(MoC)를 체결
- 에너지광물자원부 Bahlil Lahadalia 장관은 핵심광물과 첨단 에너지 기술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요소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 핵심광물 분야 협력은 보다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하며, 인도네시아의 전략 광물자원을 활용한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
- 원자력 에너지 분야 협력은 높은 안전기준을 전제로 기술 개발 및 활용에

6) https://mediaindonesia.com/jabar/berita/869574/kanada-jaiki-investasi-di-provinsi-jawa-barat#goog_rewarded

7)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0316/44/1960718/indonesia-jepang-teken-kerja-sama-pengembangan-mineral-kritis-dan-energi-nuklir>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이번 협력을 통해 저탄소 에너지 개발 과정에서 일본의 기술 및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일본 경제산업성 Ryosei Akazawa 장관은 현재의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에너지 안보와 공급 지속성 유지를 위한 국가 간 협력 강화를 강조

○ [해외기관] 인니-싱가포르, Batam·빈탄·까리문 투자 및 디지털경제 협력 강화⁸⁾(Bisnis, 3/3)

-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는 3월5일 싱가포르 EDB 사무소에서 제18차 Batam-Bintan-Karimun(BBK) 및 경제특구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BBK 지역의 투자·산업·디지털경제 협력 강화를 재확인. 인니 측은 경제조정부 부조정관 직무대행 Dida Gardera, 싱가포르 측은 EDB 의장 Png Cheong Boon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
- 인니 측은 BP Batam 권한 확대 및 Batam 자유무역지대 운영 범위 확대(8개 → 22개 섬) 등 최근 정책 현황을 설명. 2025년 BBK 지역 투자 유치 실적으로는 Batam 43억불, Karimun 13.2억불, Bintan·Tanjungpinang 85.3백만불이며, 리아우제도 외국인 관광객도 200만명을 돌파
- 이 중 주요 경제특구(KEK)별 실적으로는 Galang Batang(보크사이트·물류, 투자 21.9억불·고용 15,500명), Nongsa(디지털경제, 투자 7.62억불·고용 6,900명), Batam Aero Technic(항공 MRO, 투자 8,000만불·고용 4,200명), Tanjung Sauh(제조·물류·에너지, 투자 3.66억불)이며, Batam 관광·국제보건 경제특구도 개발 중
- 양국은 첨단 제조업, 디지털경제, 녹색인프라, 물류 연결성, 인재 개발 분야 협력 확대에 합의했으며, 비자 편의·에너지 등 주요 현안을 함께 논의함. 관련 논의 결과는 2026년 고위급 양자회의 준비에도 반영될 예정

3. 정부 정책동향

8) <https://kek.go.id/media/press/kerja-sama-indonesia-singapura-dorong-batam-bintan-karimun-sebagai-hub-investasi-dan-ekonomi-digital>

○ 프라보워 대통령, 식량·에너지 자립 가속화 방침 재확인⁹⁾(Antara, 3/11)

- 프라보워 대통령은 글로벌 분쟁과 지정학적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인니가 식량 및 에너지 자립을 더욱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힘. 대통령은 최근 국제 정세 불안이 국가 위기이자 동시에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
- 인니 정부의 핵심 우선순위로 식량 자립과 에너지 자립을 제시했으며, 식량 생산 확대에서 이미 일부 진전이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 또한 여러 지역에서 태양광발전(PLTS) 개발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 정부는 장기적으로 총 100GW 규모 태양광 설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니의 에너지 자립 기반을 강화할 계획

4. 녹색산업 동향

○ 중동 에너지 위기 대응,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추진¹⁰⁾(Antara 3/25)

-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중동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 불안정세 지속. 3월 24일(화) 기준 브렌트유는 배럴당 100불을 상회. 호르무즈 해협 공급 차질 우려가 주된 상승 요인으로 작용
- 인도네시아는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매스 등 광범위한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보유. 현재 에너지 믹스 내 재생에너지 비중은 약 15.75%이며, 정부는 2026년까지 17~21%로 확대를 목표로 설정. Prabowo 대통령은 이번 위기를 식량·에너지 자립 달성의 전환점으로 규정
- Prabowo 대통령은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 Bahlil Lahadalia를 국가 에너지전환가속화 태스크포스 의장으로 임명하였으며, 동 태스크포스는 녹색에너지 정책의 신속·정확한 이행을 목적으로 설치

9) <https://en.antaranews.com/news/408027/crises-accelerate-indonesias-energy-self-sufficiency-drive-prabowo>

10) <https://jatim.antaranews.com/berita/1047542/indonesia-prepares-energy-efficiency-measures-amid-crisis-threat>

○ 인니-일본, 산업·청정에너지 협력 확대 확인¹¹⁾(Jakarta Globe, 3/12)

- 인도네시아와 일본은 산업 발전, 에너지 전환 및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한 협력 확대 기조를 재확인. 양국 협력은 경제 성장과 산업 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 축으로 평가됨
-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는 도쿄에서 일본 자민당 사무총장 대행 Koichi Hagiuda와 면담을 갖고,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기여에 사의를 표명하며 향후 tier 2·3 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공급망을 강화하고 투자환경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인도네시아는 내수시장뿐 아니라 자동차 생산 및 수출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설명됨
- Hagiuda는 인도네시아의 친환경 연료 확대 정책, 특히 B40 프로그램과 2028년 E20 개발 계획에 대한 지지를 표명. 일본 자동차업계도 인도네시아 정부의 교통 부문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에 맞춰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힘
- AZEC¹²⁾ 프레임워크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협력도 진행 중으로, Muara Laboh 지열발전소(서수마트라), Legok Nangka WTE(서자바), 북칼리만탄 수력발전 등 복수 프로젝트가 금융종결 후 추진 중. 양측은 JOGMEC¹³⁾을 통한 전략적 산업협력과 반도체 등 기술산업 공급망 강화 가능성도 논의함

11) <https://jakartaglobe.id/special-updates/indonesia-japan-bolster-industrial-clean-energy-ties>

12)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일본 주도의 아시아 탄소중립 협력 프레임워크. 아시아 국가들의 에너지 전환 및 탈탄소화 지원을 목적으로 2022년 출범.

13) JOGMEC (Japan Organization for Metals and Energy Security): 일본 정부 산하 자원·에너지 안보 전담 기관. 광물자원 및 에너지 개발 관련 해외 투자·협력 지원.

□ 중점 프로젝트 동향

① BSD신도시 주거단지

< 사업 개요 >

- (협 력 사) 시나르마스 랜드 (Sinarmas Land, SML)
- (참여기업) 대우건설, 대한주택협회 회원사 JV
- (사 업 비) 미정
- (사업내용) 한국테마 적용 주거단지 (빌라 및 샵하우스) 건설, 분양
- (추진현황) 대우건설-SML MOU 체결('24.9.2), 1차(~'25.8) 및 2차 연장(~'26.2.15) - 토지가 협상, 자체 FS 완 - 최종 FS 수행 중
- ('26년 센터목표) 투자 의결 (2분기) / 설계 완료 및 분양 개시

○ (주요동향) 정상방한 계기 Termsheet 연장, 3자 MOU 추진

② 오리고 정수장 인수 및 운영 개선(신규)

< 사업 개요 >

- (매 각 사) PT PP (국영 건설공기업)
- (참여기업) 수자원공사 (잠정)
- (인 수 가) 미정
- (사업내용) 기 운영중인 6개 정수장 인수, 재무구조·설비 개선 후 운영수익 극대화
- (추진현황) '25上 매각입찰 실패 - '25.6월 인수 단독협상 - '25.7 Non-binding Offer 제출 - '26上 FS·DD 비용부담방안 마련중
- ('26년 센터목표) FS 및 DD 결과 검토 및 투자심의 부의여부 결정

○ (주요동향) FS·DD 비용분담방안 협의중

③ 수방 전기차 특화 산업단지

< 사업 개요 >

- (협 력 사) 현지 디벨로퍼/토지주
- (참여기업) GS건설 및 중국계 기업 참여 검토중
- (사 업 비) 미정
- (사업내용) 수방 지역내 산업단지를 단계별 조성, 분양 통해 Exit
- (추진현황) '25.2 전반적 협력 MOU 체결 - '25.10월 GS 사전사업심의 통과, DD비용 승인 - '25.12 정부에 의한 사업순연 - '26.3 KIND FS 신청
- ('26년 센터목표) DD 완료 및 투자 의결 (4분기)

○ (주요동향) GS건설 자체DD 시행 / KIND FS 공모 신청서 제출

④ 까얀1 수력발전(신규)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인니전력공사(PLN)
- (참 여 사) 원개발사(KHE), 삼성물산, 스미토모상사 등
- (사 업 비) 약 27억불 (EPC 약 15억불)
- (사업내용) 900MW 수력발전 댐 건설후 30년간 운영, 전력판매 수익창출
- (추진현황) 원개발사 제반 인허가 취득 (~'20) - 중기전력계획(RUPTL) 동사업 포함 ('25.5) - 삼성물산-KHE JV DPT 등록 ('25.12) - '26.3 KIND FS 신청
- ('26년 센터목표) FS 지원대상 선정, FS 수행

○ (주요동향) 삼성물산, KIND FS 공모 신청서 제출

⑤ 포노로고 스마트가로등 PPP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포노로고시(Ponorogo Regency)
- (참여기업) 도화엔지니어링, 에코란트
- (사 업 비) 미정
- (사업내용) 스마트 가로등 설치, 기반공사 및 운영
- (추진현황) 인근지역 KCN 실증 完, 호평 - 포노로고 대상 KIND FS지원, 준공('24.3)
- 물량확대로 자체 FS보완 - KIND 제안서작성지원 대상사업 선정('26.1)
- ('26년 센터목표) 문서/절차 완결성 검증 / 제안서작성지원 완료, 최종FS 제출

○ (주요동향) 포노로고 시장 부재로 사무총장 선출절차 진행중

□ 기타 프로젝트 동향 및 센터 운영현황

① 기타 프로젝트 동향

① 자카르타 데이터센터(투자의결 完)

< 사업 개요 >

- (사 업 주) SM플러스 (시나르마스그룹 계열사) - 한투그룹, KIND, S펀드 출자 싱가포르 SPC
- (참여기업) LG CNS (현지법인 통해 장비공급·설치, 운영, 직접사용 및 재판매)
- (사 업 비) 2.9억불
- (사업내용) 자카르타 시내 수전 30MW, IT Load 18MW 데이터센터 건설, 운영, 매각
- (추진현황) 본사 투자의결('25.9.15) / 현재 공사중 / 대출약정 체결 ('26.1.15)
- ('26년 센터목표) 금융종결 / 프로젝트운영실 이관 / 후속안건 발굴

○ (주요동향) 대출 인출 계속, 건물 공사 원활히 진행중

② 자카르타 MRT 4호선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자카르타 주정부(DKI Jakarta)
- (참 여 사) 플레너리, KIND, 국가철도공단, 삼성물산 + Bukaka 또는 Hutama Karya
- (사 업 비) 15억불 ('22년 Pre-F/S 기준)
- (사업내용) 자카르타 MRT 4호선 건설, 유지보수 ⇒ AP로 회수 (운영 분리예정)
- (추진현황) K-컨소 LOI 제출('23.2), LTP(AP 제외) 수령('24.1.26), 수정 LTP(AP 포함) 수령('25.2.19) - 기한연장 확정('25.7.8) - 컨소시엄 재정비중
- ('26년 센터목표) 컨소시엄 멤버 확정, FS 수행 / Initiator 지위 획득

○ (주요동향) 현지기업 Bukaka 및 건설공기업 Hutama Karya 참여 검토

③ 신수도 공무원주택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신수도청(OIKN)
- (참여기업) 삼성물산, 브란타스(추진철회) + CSCEC, Hutama Karya(협의중)
- (사 업 비) 약 4억불
- (사업내용) 신수도내 공무원주택(아파트 21개동) 건설, AP로 회수
- (추진현황) '24.10 삼성물산-브란타스 MOU, '24.11 LOI 제출, '25.5.22 LTP 수령, '25.10월 LTP 기한연장 확정(~26.1) - 사업주 합류/이탈 협의중
- ('26년 센터목표) LTP 추가기한연장 / 사업추진여부 및 사업주 확정

○ (주요동향) CSCEC 또는 Hutama Karya 합류 검토 계속

④ 바탐 항나뎃 공항 제2터미널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바탐 경제자유구역청(BIFZA)
- (참여기업) 인니공항공사(Ankasa Pura), 인천공항공사, Wijaya Karya(T2 불참여예정)
- (사 업 비) 5,948억원
- (사업내용) 기존 T1 리뉴얼, T2 신설, 공항운영 및 지원시설 재배치
- (추진현황) T1 리뉴얼 완공 및 운영 중 / T2 사업주 재편 및 EPC 선정 추진중
- ('26년 센터목표) 재원조달 상황 점검 및 사업 참여여부 결정

○ (주요동향) 제2터미널 시공발주계획 파악중

2 협력센터 운영 보고

- 주요기업, 기관 면담 ('26. 3월 4~5주차)
 - 네트워킹 2건 : KDB · 삼성물산 상사부문, PT System Ever
 - 사업개발 4건 : LX인터내셔널, 수자원공사 · PT PP, 철도공단 · 삼성물산 · 주인니대사관, 현대건설
 - 대관업무 3건 : 주아세안대표부, 다난타라 · 인니 외교부